

美 SVB 이어 시그니처은행 폐쇄... 국내 금융시장엔 '미풍'

(실리콘밸리은행)

모든 예금자 보호에 심리적 안정 코스피·코스닥 '강보합세' 마감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지 이틀 만에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은행도 폐쇄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국내 금융시장에는 미풍이 그쳤다. 금융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이날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블랙 먼데이'를 우려했던 시장에서 미 정부가 파산은행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결정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원화값도 상승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전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경찰관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SVB는 사실상 파산했다. /뉴스

거래일(1324.2원)보다 22.4원 내린(원화 가치 상승) 1301.8원에 마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이번 사태는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지난 12일 SV

B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보유 만기가 길지 않고 최근 금리상승기에 투자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이 채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이승현 부총재는 "미 정부가 예금자 전면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SVB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은행도 "구조적 위험"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압호화폐산업 전문

은행인 시그니처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1104억달러(약 146조원), 예치금이 886억달러에 달한다. 시그니처은행 자산도 SVB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넘겨받아 매각이나 예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다.

재무부 등은 "시그니처은행 예금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에 대해 1인당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파산한 SVB그룹의 주식을 보유한 데 이어 다음 파산 후보로 거론되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주식도 400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시그니처은행 지분도 지난 202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처분한 상황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VB 파산 후폭풍... 中 스타트업·벤처캐피탈 '발칵'

차이나 뉴스&리포트

SPD실리콘밸리은행, 진화 나서
짜이딩계약 예치금 2.3% 불과
바이지션저우 3.9%, 비중 미미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후폭풍이 중국까지 번졌다. 중국의 SVB 합작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SVB에 예치금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SVB와 중국 합작법인인 SPD실리콘밸리

은행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표준화된 지배구조와 독립적인 재무제표를 통해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SPD실리콘밸리은행은 지난 2012년 중국 국영 상하이푸둥은행(SPC)과 SVB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됐다. 과학기술 및 혁신 벤처기업들의 자금줄이 되어준 것은 물론 미국 자본시장과 중국 기업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예금잔고는 214억위안(약 4조835억원) 수준이다.

SVB와 관련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줄

줄이 해명에 나섰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짜이딩계약은 이날 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인수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 현재 현금 총액 10억8500만달러 가운데 SVB에 예치한 금액은 2.3%다.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바이지션저우 역시 지난해 말 현재 현금과 현금성 자산 45억달러의 3.9%가 SVB에 예치돼 있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텅성보야오와 자커스 등도 SVB 예치금의 비중이 미미하다고 공개했다.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은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재 SVB에 예치금이 없다고 밝혔다. 창업자 왕성이 SVB에 6000만달러를 예치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돌면서 메이투안이 서둘러 대응했다.

홍콩중문대 심천금융연구소 정레이 겸 임교수는 "미국에 상장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이번 SVB 파산으로 비상장 중국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 VC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로펌 관계자는 "SVB는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 사모펀드들에게 좋은 선택지였다"며 "SVB 파산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신뢰는 낮아졌고, 달러 자금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SVB 파산이 중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중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2년간 중국 스타트업들의 달러 투자 의존도가 줄었다"며 "지난해 투자 시장에서 중국 국적 자본 및 국유 자본의 인민폐 투자자(LP) 출자 비율이 70%를 넘어 SVB 사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ince 1996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BH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창업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의류/화장품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달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만 여개의 인기 & 특가상품

30년 역사 헛터그룹

BH 대한홍삼 [주] 브레인TV (주) 헛터라이프 (주) 한삼장홍삼

문의: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KT&G, 행동주의 펀드 제안 사실상 '거절'

"제안주주 추천후보 전문성 여부 확인 못해
이사회 추천 김명철·고윤성 후보 지지"

KT&G가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하고 주총소집을 공고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하며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KT&G 이사회는 지난 10일 공시한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입장을 공개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 우려를 내비치며 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들의 강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사회는 입장문에서 "제안주주(행동주의펀드) 측에서 추천하신 대부분의 후보자는 감사위원 후보로 함께 상정되었음에도 상법상 요구되는 재무전문가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KT&G 이사회에서 추천한 김명철 후보와 고윤성 후보에 대해서는 "두 후보 각각 금융·국제경험, 재무·회계·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면서, "지난 임기동안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이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KT&G 이사회는 현 이사회 구성과 역량이 유지되는 것이 KT&G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 배경에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뒷받침하는 '이사회 역량 지표(BSM : Board Skills Matrix)' 운영 및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KT&G는 BSM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부문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공시를 통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KT&G 이사회는 주주환원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의 무리한 요구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 배당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KT&G 이사회는 "제안주주측의 주당 1만원의 배당, 즉 1조2000억원 규모의 배당과 자사주 1조2000억원 규모의 일시 추가 취득 요구는 회사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매우 과도한 수준의 요구"라며 "현 주주환원 규모의 약 3배에 달하는 제안주주측의 요구는 회사의 성장투자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사회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마다 약 1조원의 환원정책을 수행하고, 대규모 성장투자를 계획한 KT&G 입장에서 현재 환원보다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의 주주제안이 실현된다면 장기적 성장 플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